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과거, 현재, 미래로 조명하는 봉은사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묵묵히 자리 잡은 대사찰 봉은사

도심 속 포교도량으로 우뚝 선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창건 1212년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봉은사의 과거·현재·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1천2백여년에 이르는 봉은사의 역사를 돌아보며, '강남제일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봉은사의 면면을 조명해 본다.



봉은사는 지금으로부터 1212년 전, 신라 원성왕 10년 794년 연호국사에 의해 창건됐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고찰(古刹) 봉은사'란 표현은 봉은사의 오랜 역사를 가늠해 해준다.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위치하고 있던 봉은사는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시인 묵객들의 붓끝을 멈추게 만들었다. 서산대사는 전국을 유람하다가 봉은사에 이르러 "전각에 오르면 시원한 기운을 맞볼 수 있고 푸른 못에 다다르면 더위를 잊을 만하다. 연꽃을 구경하면 향기가 달고, 매화를 바라보면 달이 창에 떠오른다"고 했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21세이던 해 가장 다정했던 형인 정약전과 함께 이곳 봉은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면서 봉은사를 이렇게 노래했다.

"...울창한 숲과 나무 우거져 별려 있어 둘러보며 답답한 마음 풀어버리네..." 이러한 시들은 이제는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봉은사의 옛 정취를 짐작하게 해준다. 봉은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조선 연산군 때에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을 수호하는 능침사찰(陵寢寺刹)로써 봉은사를 지명할 때부터다. 당시까지 견성사(見性寺)였던 사명(寺名)은 이후 봉은사(奉恩寺)로 개칭됐다. 이후 금강산 등지에서 20여년 넘게 수행 정진한 보우 대사가 문정대비의 요청을 받아들여 봉은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일대 변혁이 시작됐다. 주지로 부임한 보우대사는 먼저 선교 양종과 승과 고시를 부활해 서산, 사명대사와 같은 걸출한 승려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또 호패와 같은 성격을 가진 도첩제를 실시해 당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던 스님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화엄사를 중창하는 무자대회를 여는 등 조선불교 중흥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지금도 봉은사는 선종수사찰(禪宗叢刹) 또는 선종갑찰(禪宗甲刹)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사명대사는 이를 두고 "지금의 학자가 그를 힘입어 돌아갈 곳을 얻어 불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보우대사가 아니었으면 불교가 거의 없어질 뻔하였다"라고 찬탄하기도 했다.

봉은사는 자리적으로 한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뒤로는 명문 경기가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는 세계로 향하는 무역센터와 아셈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무역센터 앞으로는 미래 제철을 준비하는 벤처 사업의 거리가 있다. 강남 지역은 또한 경제적, 문화적 자긍심을 가진 시민들이 항상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지역적 특성이 배어있는 곳. 이 생활의 중심에 봉은사가

조선불교 중흥도량에서 한국불교 중흥도량으로 ...

'조선불교중흥도량'의 역사를 이어 '한국불교 중흥도량'으로 거듭나려는 봉은사의 행보가 눈부시다.



한국불교와 함께한 봉은사 미래로.. 세계로.. "한국불교의 중흥도량으로 거듭나자"

◇선종수사찰로 자리한 봉은사 한국불교 고비마다 중심사찰로 자리잡아

1911년 일제는 사찰령을 발표해 30만산제를 실시하고 봉은사를 30만사 중의 하나로 지정했다. 당시 봉은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80여 사찰을 관할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펼쳐졌던 나철호 스님의 수해구제 원력은 현재까지도 유명하다. 나철호 스님이 봉은사에 주석하던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자, 철호 스님과 봉은사 사중은 물에 떠내려가는 양민 700여명을 구해 주민들로부터 활불(活佛)의 칭호를 받았다.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 100인이 청송하여 받드는 불교비첩 공덕비와 책자가 발간되기도 했다. 해방이후 새롭게 전국사찰이 정비되면서 봉은사는 인제양성의 산실로 다시 태어났다. 당시 주석하던 윤해 스님이 동국역경원 역장이 되어 불교의 한글화와 도제양성을 꾀했다. 초대 종정 한암 큰 스님을 비롯해 2년 전 입적한 석주 큰스님까지 역대의 많은 총무원장 스님들이 봉은사에 주석했던 면면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연이어 치르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봉은사는 또 한 번 한국불교의 중심사찰로 거듭났다. 1990년대는 중앙승가대 등 젊은 청년 승가활동에 앞장섰던 스님들이 봉은사에서 활동하면서 승가 전통인 '산중공의제도'를 부활시켰다. 사중의 대소사를 대중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중무회의 제도'를 실시했고 재가종무원 제도를 실시해 유능한 재가 불자들을 사찰행정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포교활동과 사회활동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찰운영 체질 개선의 영향으로 1994년 종단개혁 후 많은 유능한 재가 불자들이 종단에 포진돼 지금은 명실 공히 사부대중 공동체가 종단을 함께 운영하는 건강한 중무행정의 틀을 이루었다.

◇앞서가는 중무행정 시스템, 신도조직으로 현대화

1998년 11월 18일 21대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원혜 스님은 1989년부터 봉은사에 포교실장과 총무원장, 부주지를 두루 거치면서 1995년에는 개역종단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다가 봉은사 주지로 임명됐다. 오늘날 봉은사 신도회의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기초는 이때 마련된 것. 또한 총무원장 시절에는 중무행정 양식의 틀을 만드는 데 전념해 현재 봉은사의 행정양식을 통일하는데 앞장섰다. 신도수 1만, 신도입원만 200여명에 이르는 봉은사 신도회는 서울지역 최고·최대의 포교 발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은사 신도회는 1990년 서울에 대홍수가 일어나 한강이 범람하여 송파구에 물난리가 났을 때 지금의 송파구 풍납동 지역에서 수재민 구호활동을 진행한 것을 계기로 생겨났다. 신도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한 신도들이 합심하여

구역법회를 조직하였고 꾸준한 발전 속에서 사찰 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의 범위는 점점 군법당, 교도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해마다 일어나는 태풍이나 홍수로 재난이 발생하면 구역법회가 앞장서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호활동 전 기간에 걸쳐 구호활동에 몰두하는 소방대원과 군인들에게 매일 국방 1000인분을 지원하며 대중공양을 펼치기도 했으며, 올해 7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해지역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발 벗고 참여하여 19일~23일간 매일 1000인분의 대중공양과 공사인력을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봉은사 신도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현재 증평과 조실 스님과 총재 주지 스님, 지도법사 부주지 스님의 지도 아래 회장단을 구성하고 봉사와 실무기구로 총괄본부 하에 총무본부, 포교본부, 교육본부, 사회본부, 봉사본부 하에 28개의 부장을 두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대두된 문제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불자들의 필요성이었다. 1990년부터 봉은사는 그간 신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강좌를 통합하여 하나로 통합했다. 입문, 기초학당, 불교대학, 경전학교, 지도자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여러 학자들이 한 경전을 놓고 토론하는 논강 등을 마련해 불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또한, 올해의 주요사업교육 사업으로 '참살림, 행복, 명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아버지 학교, 부부교실, 웰다잉 재향교실, 예비부부교실 등 현대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제일도량, 도심포교의 장으로 거듭나다

신도조직과 교육사업이 진행되면서 봉은사는 포교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여 어린이불교학교, 중고등학교 생활 포교를 위한 파라미타 법회가 이루어지고 대학생법회와 청년회 법회가 매주 말에 진행되는 중이다. 봉은사는 특히 청소년 포교에 전념한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파라미타 서울지부를 봉은사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신도단체들의 포교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사불자연합회, 불교상당개발원,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 불교레크레이션 포교회 등 수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교사불자회 소속 교사가 각급 학교에서 불교반을 창립할 경우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염불소리는 그치지 않고 수행은 멈추지 않는다

봉은사의 중심법회는 일요법회와 수요 야간법회다. 봉은사는 일요법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17년간 수없이 많은 방안을 강구했다. 그 결과 봉은사 일요법회는 주제가 있는 기획법회로 거듭나게 됐고 현재 600~700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동참하고 있다. 금년 일요기획법회는 원로위원 스님 초청 법회, 선원장 스님 초청법회를 상반기에 열었으며 하얀 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각성 큰스님의 <대승기신론> 강론을 병행했다. 현재는 도심 포교활동에 전념하는 13 명의 포교당 주지 스님을 초청해 '정토 세계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매주 듣고 있다. 내년 초에는 '선지에게 법을 듣는다'

◇이웃과 함께 하는 강남제일도량 봉은사

'이웃과 함께 하는 봉은사'의 면모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화법회 참여에 열심인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봉은사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산하 시설인 강북장애인복지관과 역사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논현동과 도곡동에 연화어린이집과 선우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등 지역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강북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지정운영사찰로 선정돼 꾸준히 운영해 2004년 서울시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역사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6월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와 함께 전국 유수의 청소년 단체인 흥사단, 청소년보호협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열린사회복지재단 등과 결합한 끝에 '청소년포교에 전념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은사가 위탁사찰로 선정됐다. 2004년 3월 개관식을 가진 역사청소년수련관은 불자청소년들의 이상을 펼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봉은사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복지에 실천하고 여르신을 위한 복지를 펼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시설과 노인종합복지시설 수탁을 준비하고 있다. 봉은사는 또 '작은보시큰재미실현회'와 '서산·사명장학회' 등을 통해 지역 소년 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보시큰재미실현회'는 처음 봉은사 신도들이 연꽃 저금통으로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의 장학금이 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매월 통장에 회비를 입금하고 법당루에 보시함을 마련해 현재는 그 기금으로 밀반찬 배달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금은 강남구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사업과 영등포교도소 지원, 군법당 지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지원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2003년 발족한 '서산·사명장학회'는 중립학교인 동국대학교부속남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학교 장학금지원, 지역 소년소녀 가장 장학사업 등을 통해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매일 경모당을 찾아가 위문 봉사하는 '전법봉사연동', 불자기장을 위한 상호회인 '지장연합회' 외에도 군법당 지원, 교도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원이 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체도 발족했다. 올해 처음 구성된 '봉은사 사회복지 포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비자회 사회복지활동비 예산을 수립하여 분배하는 일을 할 계획이다.

www.bongeunsa.org



개산 1212주년 개산대재

행사명 | 개산 1212주년 개산대재 | 기간 | 불기2550년 10월 24일(화)~10월 30일(일) | 장소 | 봉은사 전역

역사와 함께 한 봉은사

봉은사에서는 개산 1212주년을 맞아 천년을 함께한 우리의 역사와 봉은사의 전통을 되살리고, 역대 조사스님들의 큰 뜻과 업적을 계승하고자 개산대재를 봉행합니다. 이번엔 봉행되는 개산대재는 봉은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 테마로 봉은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최주 성암 종범 · 주지 설담 원혜 · 신도회장 대원 김경남 · 사부대중 일동

테마별 주요행사

<p>테마 1 봉은사의 과거·현재·미래 개산대재 기념 세미나 과거·현재·미래 사진전</p> <p>테마 2 불교문화 체험하기 내국인·외국인 템플라이프 어린이 불교문화 체험 친선불 축제(초·중·고·대학생·연령 또는 불장수 만들기 체험/ 인공레일/ 드드레임/ 삼신제임...)</p>	<p>테마 3 신행 속에 싹튼 깨달음 개산대재 - 다례제/ 정대불사 자비도량 참법기도 3000배 철야정진</p> <p>테마 4 하나 되는 우리사회 봉은사 초청 경모초치 미라클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비자회 산하단체 지치행사</p>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주관 | 봉은사 개산대재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종무소 3218-4811~28 Fax. 544-2141